SK 히트상품 '토크콘서트'… 야구와 수학이 사랑에 빠지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KBO리그가 1982년 첫 발걸음을 내딛으며 전한 슬로건이다. 그라운드 안에서 펼치는 최고의 경기, 그리고 사인회, 팬 미팅, 봉사활동을 통해 프로야구는 그 꿈을 선물해왔다. 야구가 전하는 나눔과 희망은 30여 년 동안 빨라진 투수들의 공만큼 더 깊어졌다. SK 와이번스는 야구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는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부러진 배트로 필기구를 만들었다. 누구나 갖고 싶은 특별한 기념품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프로야구단의 마케팅은 더 큰 꿈과 희망이 되고 있다.

SK 와이번스는 최근 야구와 수학을 접목한 토크콘서트를 선보였다. 연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구 속 수학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연고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물론 대학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인천 지역 학생들이 강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SK 와이번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다. 그라운드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숫자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품고 이야기로 흐른다. 그래서 각종 수학 공식들과도 긴밀히 어우러진다. 이렇게 야구와 만난 수학은 '어렵다'는 고정관념도 가볍게 부순다. 야구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SK 와이번스가 7월 첫 선을 보인 '인천SK 야구수학 토크콘서트'의 모티브다. 야구와 수학의 공통분모를 찾아 연고 지역의 수학 교육에 힘을 보태려는 '착한 생각'이 출발점이 됐다. 더욱이 야구 속 수학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색 강의를 시작으로 홈경기 단체 관람까지 이어지는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일일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초·중·고·대학교 학생과 교사를 아우르며 전 세대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SK와 인천의 똑똑한 상생이다.

●야구랑 수학이 이렇게 친해?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7월 18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열린 1차 토크콘서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SK는 깜짝 놀랐다. 당초 200명을 초대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682명이 참가 의사를 밝혀 조기에 신청을 마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동참하는 가족 행사로도 두루 활용된 까닭이다.

9월에는 규모를 키웠다. '가을 시리즈'라는 명명아래 초·중·고·대학교 과정별로 총 4회에 걸쳐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대학생들에게는 '에이징 커브(나이대별 성적 변화)'를, 고교생들에게는 타율과 OPS(출루율+장타율) 등의 기본 개념 설명하는 식으로 수준을 나눴다. 야구와 수학에 대한 친밀한 감정과 전문 지식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 특히 대학교 과정이 열린 11일 토크콘서트에는 투수 박종훈과 손지환 수비코치, 고등학교 과정이 진행된 12일에는 투수 서진용이 일일강사로 자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12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 앞서 열린 고등학교 과정의 토크콘서트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강화여고 1·2학년 전교생 350명은 버스 8대를 대절해 강의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고, 인천 지역 6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총 543명이 참가했다. 강의 내용

에이징 커브·OPS·수비시프트
야구속의 재미있는 수학이야기
초·중·고·대학생 뜨거운 호응
서진용 등 선수들은 일일강사로
강화여고선 1·2학년 모두 참가

토크콘서트를 진행중인 SK 김우중 장내 아나운서와 투수 서진용, 박윤성 전략육성팀 매니저, 인천 인항고 홍석만 교사(왼쪽부터).

으론 수비시프트에 수학의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을 접목시켰는데, 평소 SK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물론 야구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반응이 좋았다. 대인고 1학년 송상윤 군은 "야구에 흥미가 없었는데, 와보니 분위기가 정말 뜨겁다. 수학과 야구를 연관지은 것이 흥미로웠다"며 미소 지었다.

야구와 수학의 만남은 선수에게도 특별하긴 마찬가지다. 서진용은 "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지켜보니 '야구와 수학이 이렇게 관련이 많았구나' 싶을 정도다. 나 역시 야구와 수학과의 접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잊지 못할 순간을 안기다

SK의 토크콘서트는 단순히 수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선수와 인천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만나 스킨십을 주고받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열린 강의에 참석했던 서진용은 진행자로부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학창시절 운동에 매진해야했던 까닭에 학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진솔한 조언을 남겼다. 서진용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꼭 찾길 바란다.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해 꼭 꿈을 이루기 바란다.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특별한 추억도 함께 선사했다. 노수광의 유니폼을 입고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강화여고 2학년 이세영(17) 양은 퀴즈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KT전 식전행사 참여 기회를 얻었다. 평소 응원하던 노수광 옆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사인볼도 받았다. 그는 "SK 팬으로서 감동적인 이벤트였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구단 분들께 감사드린다.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다"며 벅찬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행사의 전체 기획을 맡은 류선규 전략육성팀장은 "'타율이나 수비 시프트 같은 얘기를 일반인들이 수학으로 인지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막상 강의를 해보니 수학과 연결된 포인트가 많았다"며 "내년에도 전반기와 후반기 각 1회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부러진 1군 선수 배트에 청소년들 꿈 담아 만든 볼펜

한화 '업사이클링 배트 프로젝트'

나눔의 집 청소년들 3개월간 정성
수백개 샤프와 볼펜으로 재 생산
두차례 이글스파크 마켓서 완판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덕아웃에는 타자들의 이름과 번호가 새겨진 전용 배트 수십 자루가 결정적 한방을 기다리며 나란히 서있다. 프로야구선수 전용 최고급 나무 배트인 이 방망이들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기념품으로 배트 주인이 사인을 하면 고가로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덕아웃 바로 뒤편에 가면 슈퍼스타의 이름이 새겨진 배트들이 커다란 통에 어지럽게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손잡이 부분에 살짝 금이 간 배트, 부러진 방망이들로 더 이상 경기에서 쓸 수 없는 폐기물이다. 모두 일반 쓰레기로 처리된다.

한화 이글스는 부러진 배트에 아주 특별한

한화 이글스는 경기 도중 부러진 배트로 볼펜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배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고지 청소년들이 직접 배트를 가공해 의미를 더한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새 생명을 선물하고 있다. 한화는 시즌이 개막된 3월부터 5월까지 1군 경기에서 선수들이 직접 공을 맞추다 부러진 배트 50개를 수백 개의 샤프와 볼펜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배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화는 성공회 나눔의 집과 손잡고 청소년들이 직접 이 배트를 샤프와 볼펜 등 필기구로 가공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특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 시즌 두 차례 대전한화이글스파크에서 마켓을 열고 필기구를 판매했고 이번 달 말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글스 로고가 적힌 특별한 필기구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선수들이 분신처럼 여겼던 배트를 나눔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담아 볼펜으로 새 생명을 불어 넣은 특별한 의미가 깊이 전달된 덕분이다. 지난 두 차례 마켓에서 필기구는 모두 완판 됐다. 3개월 동안 땀을 흘리며 필기구를 제작한 청소년들은 더 밝은 미래를 그리며 열심히 볼펜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한화홍보팀 오창석 과장은 "하루에도 몇 자루씩 부러지는 배트를 보면서 야구단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나눔을 고민하며 시작했다. 나눔의 집에 공방이 있고 공작기계가 있어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60여 명이 참여 했는데 판매 할 때 마다 반응이 뜨거워 모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KIA '러브투게더' & 삼성 '야구는 내 친구'

각각 8년·6년째 꾸준한 사회 공헌

KIA 모기업-구단 연계 기부금 모금
퓨처스 프로젝트선 장학금 등 지원
삼성은 코치가 찾아가는 야구교실

구단의 사회공헌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속성이다. 아무리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획이 있어도 오랜 시간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면 단발성의 보여주기식 계획일 뿐이다.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는 그런 면에서 꾸준하게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온 구단들이다. 지역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수 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해 와 지방구단 사회공헌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다.

KIA는 올 시즌에도 성황리에 끝난 '타이거즈 러브투게더'가 대표적인 지역 연계 사회공헌활동이다.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구단 연계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아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나가는 식이다. 시즌 종료 뒤 모아진 금액으로 다음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지난해에는 통합우승에 힘입어 총 5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올 시즌 KIA는 '러브투게더' 활동의 일환으로 야구 꿈나무 장기육성 프로그램인 '퓨처스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야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매년 3명씩 선발해 3년간 장학금과 장비 구입비를 맞춤 지원하는 형식이다. 올해는 6명을 선발했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러브투게더'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8년간 야구 꿈나무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삼성은 '야구는 내 친구'라는 사회공헌활동을 2012년부터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토요 야구교실'이라는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현역 코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고, '우리반 야구장 가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매 경기 지역 학생들을 홈구장에 초청하고 있다. 구단은 올해 약 3만 7000여명의 학생들이 홈구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